



금융감독원

보 도 자 료

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도	2024.5.9.(목) 15:00	배포	2024.5.9.(목)		
담당부서	보험리스크관리국 보험리스크총괄팀	책임자	국 장	이태기	(02-3145-7240)
		담당자	팀 장	박수홍	(02-3145-7242)

금감원, 선제적 이슈 파악을 위한 IFRS17 릴레이 간담회 개최

[1.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년 4월,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의 안착을 지원하고 보험업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 ① 공동협의체 구성·운영 등 체계적 대응 관리, ② 밀착 점검 및 소통 강화, ③ 한시적 계도기간 운영 등을 담은 『IFRS17 감독·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 「새로운 보험회계제도(IFRS17)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감독·지원해나가겠습니다」('24.4.11. 보도참고자료)
- 위 감독·지원 방안의 후속 추진과제로서 '24년 계도기간 동안 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 이슈사항 조기 파악을 위한 보험 재무정보의 생산자(보험회사 결산 담당)·확인자(회계법인, 보험계리법인)·이용자(애널리스트)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임

[2. 애널리스트 간담회 개요]

- '24.5.9.(목), 금융감독원(차수환 보험 담당 부원장보 주제)은 릴레이 간담회의 첫 시작으로 보험 재무정보를 가장 많이 분석·이용하는 신용평가사 및 증권사 소속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 새롭게 변한 보험 회계제도 아래에서 재무정보 이용에 있어 긍정적인 측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주요 이슈 및 건의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되었음

IFRS17 릴레이 제1차 간담회 개요 : 보험 부문 애널리스트 간담회

- ☑ 일시 / 장소 : '24.5.9.(목) 15:00 ~ 16:00 / 금감원 회의실
- ☑ 참 석 자 : (금감원) 보험 담당 부원장보, 보험리스크관리국 국장 및 팀장
(업 계) 신용평가사 및 증권사 보험 부문 애널리스트

[3. 주요 논의 내용]

-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애널리스트는 IFRS17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회계정보가 실질가치에 보다 부합하게 되었고, 자산·부채의 시가 평가에 따라 자본안정성이 제고되는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며,
 - '23년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 도입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회사별 비교가능성 및 재무지표의 신뢰성이 제고된 점은 보험회사에 대한 평가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 다만, 기존에 익숙했던 정보와 달리 새로운 제도로 인한 생소한 용어와 이론적 개념 등으로 인해, 정보의 직관성이 떨어지고 시행 초기 보험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면이 있으므로 공시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4. 당부 사항 및 향후 계획]

- 차수환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투자자 관점에서 보험회사의 재무 정보가 잘 공시될 수 있도록 IFRS17이 도입된 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사항을 당부함
 - ① 새롭고 생소한 용어·개념이 많이 도입되었으므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보험회사의 실질가치를 잘 분석하고 투자자 및 자본시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애널리스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 ② 보험회사별 실질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회사간 비교를 통해, 보험회사가 단기 실적 개선이 아닌 펀더멘털 강화에 집중하여 진정한 벨류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주시기 바람

③ 보험회사의 계리적 가정 적정성 등에 대한 이슈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비교·평가**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이 자체적으로 시장 균형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장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랍

□ 금융감독원도 금융위원회와 함께 보험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IFRS17 이슈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K-ICS 제도 개선** 등 보험회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임

□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5~6월 내 보험회사 결산 담당자 및 회계법인, 계리법인 대상으로도 릴레이 간담회를 추가로 실시하여,

○ IFRS17 및 K-ICS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공동협의체 논의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임